

# 영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의 강화사 (INTENSIFIERS) – 머리에 묶이지 않은 용법 (NON-HEAD-BOUND-USE)을 중심으로

최규런

연세대학교

choikrun@kornet.net

## 요약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compare English, German and Korean non-head-bound-intensifiers such as English 'x-self', German 'selbst', and Korean 'susulo, casin'. That is,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semantic domain where the respective contributions of the expressions in question overlap.

The phenomenon under discussion with the label "intensifiers" is regarded as universal, which provides the ground of the comparative/contrastive or semi-cross-linguistic study of this paper. Not only the semantic concept of intensification by these expressions but also the combination of grammatical features or syntactic behaviours thereof seem to have highly invariant common denominators among the wide varieties of languages, even if they come from apparently different language families.

In comparing English, German and Korean intensifiers, this paper is interested in the more general features of the expressions in question rather than some language-specific idiosyncracies. Intensifiers work similarly not only in English and German, but also in Korean. Each of three languages under investigation provides some sort of a safeguard against confusing instances and misleading judgements on the issues under discussion.

Morphologically, however, English expressions in question agree with their relevant NP in number, gender and person. Whereas German and Korean counterparts do not have such specific morphological properties.

Intensifiers in their non-head-bound-use are subject-oriented, just as in their head-bound use. Non-head-bound-intensifiers differ from head-bound-intensifiers mostly in their syntactic behaviours or distributional properties, whereas they share the semantic domain "intensification" regarding relevant subject-NP. They

introduce an ordering and distinguish center and periphery, and 'self-involvement (directness of involvement)' seems a additional possible characterisation of the relevant dimension of these intensifiers in common. An assertion of identity also can be regarded as an specific ingredient of the meaning of these expressions.

## 1. 서론

한국어의 '스스로, 자신', 영어의 'x-self', 독일어의 'selbst'가 재귀대명사 또는 재귀 조응사(reflexive anaphors)로 쓰이지 않는 경우 즉, 지시적으로 관련표현에 의존적인 경우 및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 공지시를 표지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용법들에서, 이들은 강화사로 범주화될 수 있다.

- (1) (한) 순이는 스스로를/자기를/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본다. (재귀대명사)  
(영) Mary is regarding herself in the mirror  
(독) Anna betrachtet sich im Spiegel.
- (2) (한) 둘이 순이 스스로를/\*자기를/자신을 사랑한다고 한다. (강화사/강조재귀사)  
(영) John says that he loves Mary herself.  
(독) Hans sagt, dass er Anna selbst liebt.

그러나 이들 강화사 유형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 것인지, 그 수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 (Edmonson and Plank 1978, König 1991, Primus 1992, König and Siemund 1996, 1998 etc., Siemund 2000, 최규련 2001 등)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강화사에 대한 결정적인 범주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규련(2001 ㄱ/ㄷ)에서는 한국어와 독일어의 강화사를 척도 첨가 초점사 용법과 비척도 첨가 초점사 용법으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머리에 묶인 용법 (head-bound-use)과 머리에 묶이지 않은 용법 (non-head-bound-use)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

- (3) (한) 대통령 스스로가/자신이 왔다. (척도 첨가 초점사 용법)  
(영) The **P**resident himself came.  
(독) Selbst der Präsident kam.
- (4) (한) 대통령스스로가/자신이 왔다. (머리에 묶인 용법(head-bound-intensifier))  
(영) The President himselfcame.  
(독) Der Präsident **S**elbst kam.
- (5) (한) 대통령이 스스로 왔다. (머리에 묶이지 않은 용법(non-head-bound-intensifier))  
(영) The President came himself.  
(독) Der Präsident kam **S**elbst.

- (6) (한) 심지어 대통령이// 대통령까지/마저/조차 왔다. (주요 척도 첨가 초점사)  
 (영) Even the **P**resident came.  
 (독) sogar der Präsident kam.

이 논문은 위의 예 (5)에서 보인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의 통사적 속성들과 의미 기능을 기술하고 분석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는 바, 현안에 따라 영어와 독일어, 영어와 한국어, 독일어와 한국어를 비교하고, 세 언어를 모두 비교대조하기도 하겠다.

먼저 통사적으로, 주제화 (topicalisation), 피동화 (passivisation) 현상과 관련된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의 속성들, 그리고 영향권 관련 요소들(scope bearing elements)이 있는 문맥에서의 해당 강화사들의 속성들이 비교 분석된다.

의미적으로,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의 척도 표현들 (scalar expressions), 즉 척도 초점사 (scalar focus particles)로서의 기능이 분석되고, 이 기능을 다시 하위 분류하여 제외 기능과 첨가 기능을 수행하는 강화사들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 2. 개관

한국어의 강화사들 (intensifiers)은 보통 재귀 대명사들 (reflexive pronoun)과 형태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 독일어는 재귀대명사 'sich'와 강화사 'selbst'(와 'selber')<sup>1</sup>가 확연히 구분된다. 한국어의 강화사 '스스로'와 '자신'은 재귀 대명사들 '스스로', '자신'과 형태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점에서 'x-self' 형태가 재귀대명사로도 쓰이고 강화사로도 쓰이는 영어의 경우와 닮았으나, 재귀 대명사 '자기'와는 확연히 구분되므로 독일어와 영어의 절충형 강화사를 보유하고 있다 (최규련 2001).

독일어를 제외하고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형태적으로 강화사와 재귀 대명사가 구분이 안 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전자와 후자를 일반적인 통사적 속성들에 의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Siemund 2000, 최규련 2001 ㄱ/ㄷ).

첫째, 대부분의 경우, 재귀 대명사들과 그들의 선행사들 (antecedents)은 하나의 동일한 서술어 (one and the same predicator)의 공통 논항들 (co-arguments)이다. 강화사들은 부가어들 (adjuncts)이다. 논항인 재귀 대명사를 빼면 그 문장의 문법성이 침해되지만, 부가어인 강화사들은 생략되어도 그 문장의 문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재귀 대명사들은 명사구들 (NPs)의 치환어로 기능한다. 강화사들은 명사구들을 대신하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귀사들은 '대명사'로 부를 수 있으나, 강화사들은 그럴 수 없다.

셋째, 재귀 대명사들은 그들의 지시 용법에 있어서 언제나 어떤 선행사와 공지시 관계에 있고, 주 임무가 공지시 기능이다. 강화사들은 그들 자신만으로는 공지시 기능

<sup>1</sup> 독일어의 'selbst'와 'selber'는, 후자가 전자처럼 'sogar'에 상응하는 척도 첨가사로서 쓰이는 예가 없을 뿐, 대체로 문체상이나 분포상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Primus 1992 등).

을 수행한다고 간주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초점사가 있는 문장들은 초점사가 초점화한 표현이나 초점사 자신에 핵강세를 가질 수 있다. 한국어의 다른 초점사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인데(최규련 1997, 1998, 1999, 2000, 2001 등), 초점표현에 핵강세가 놓이는 것이 무표적(원형적) 핵강세 위치이고, 초점사에 핵강세가 놓이는 것이 유표적(비원형적) 핵강세 위치이다(Jacobs 1983, 1986, König 1991, Primus 1992, 최규련 *ibid.* 등). 최규련 (2001 ㄱ/ㄷ)에서는 강화사를 초점사로서 분석하고 있다.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은, 영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 모두에서 스스로가 핵강세를 받는다. 핵강세는 한국어의 경우 강화사 '스스로, 자신이/자체적으로'에, 영어의 경우는 'x-self'에, 독일어의 경우는 'selbst'에 놓인다.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non-head-bound-intensifier)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머리에 묶인 강화사(head-bound-intensifier 예 (4) 참조) (및 척도 첨가 초점사로서의 용법 예 (3) 참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명사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곧, 관련 명사구를 초점화하며 따라서 초점과 영향권에 연관된다.

그러나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는, 관련된 명사구를 수식하는 머리에 묶인 강화사와는 달리 동사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전자와 후자의 명칭은 이러한 통사적 특성에서 연유한다.

다음 예 (7), (8)과 같은 문장들이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의 척도 초점사로서의 기능을 보인다. (7)의 강화사는 첨가 기능을, (8)의 강화사는 제외기능을 수행한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이를 문맥 비의존적인 강화사 고유의 기능들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아래 5절에서 상세히 논의된다. 예 (9)에서의 '스스로'("자발적으로")의 기능 같은, 이른 바 방식부사(manner adverbs)로서의 해당 표현들의 기능은 논의에서 제외된다.

- (7) 영:I know what it means to be poor because I have been poor myself. (inclusive)  
 독:Ich weiss, was es bedeutet, arm zu sein, weil ich selbst arm gewesen bin.  
 한:나는 스스로 가난했기에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 (8) 영:I have written this article myself. (exclusive)  
 독:Ich habe diesen Artikel selbst geschrieben.  
 한:나는 이 논문을 스스로 썼다.

- (9) 아이가 우유를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즐겨 마신다. (방식부사 manner adverb)<sup>2</sup>

형태적으로, 영어의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은 관련 명사구와 인칭, 수, 성에서 일치한다. 독일어의 해당 강화사는 관련 명사구와 이러한 형태적 일치를 전혀 보지

<sup>2</sup> '억지로(unvoluntarily)'와 대조되는 의미로서 즉 '자발적으로(voluntarily)'의 뜻으로 쓰인 '스스로'를 생각하라 (최현배 1937/1985 참조).

지 않는다. 한국어의 해당 강화사는 관련 명사구와 인칭 수 성에서의 형태적 일치는 보이지 않으나, 조사 '이/가'가 수반되어 주어 명사구와의 밀접한 상호 작용을 추정케 한다 (각주2 참조).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은, 관련된 명사구의 바로 뒷자리에 묶이지 않는다(머리에 묶이지 않는다, non-head-bound). 한국어의 경우, 주어-목적어-동사로 된 정치 어순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와 목적어 또는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 주로 나타난다. 이 용법에는 '스스로'가 주로 쓰이고, '자신'과 '자체'는 '자신이'나 '자체적으로' 같은 변이형으로 제한된 쓰임을 보인다 (예 (10), (11) 참조). 그 대신에 부사이거나 부사어들이 관련된 다른 표현들 '몸소, 손수, 직접, 친히' 등이 이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므로 이 표현들도 강화사로서의 자격이 있다.

(10) ㄱ. 대통령은 스스로/자신이<sup>3</sup> (몸소/손수/친히/직접) 기자회견을 청했다.

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스스로/자신이<sup>4</sup> (몸소/손수/친히/직접) 청했다.

(11) 부실 재벌은 스스로/자체적으로 (\*몸소/\*손수/\*?친히/직접) 살길을 찾아야 한다.

영어의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은, 정치어순에서 다음 (12) ㄱ.처럼 일반적으로 문장 끝(sentence-final)에 출현하고 동사와 목적어 사이의 위치에 출현할 수 없으나, (12) ㄴ.처럼 특기할만한 예외들이 있다 (Edmonson and Plank 1978: 375 참조).

(12) ㄱ. The Prime Minister Minister insulted (\*himself) the Queen himself.

ㄴ. How can I give advice when I (myself) am (myself) affected (myself)?

<sup>3</sup> 이 경우의 해당 표현 '자신이'가 강화사인지 재귀대명사인지를 규정하기가 모호한 점이 있다. 무엇 보다는 '자신'에 '이'가 붙은 형태여서 주어와 동일한 격을 표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가'가 반드시 격조사로서만 쓰이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가'가 딸린 표현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격은 아니다. 더욱이, 해당 예들에서 볼 수 있듯, 다른 한편으로는 부사어 '스스로'와 별 문제없이 치환될 수 있다. '자신이'가 부사어 '스스로' 자리에 나타난 이 현상은 '자신'만으로는 부사어를 형성하기 어려운 한국어의 언어 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런 모호한 경우도 포함하여 강화사로 다루기로 한다. 다음 예에서 '똑바로'와 '똑바로가'는 둘 다 부사어이다. (i) 가. (의사가 환자에게) "허리를 똑바로 펴 보세요." 나. (환자가 의사에게) "(허리를 펴긴 펴는데) 너무 아파서 똑바로가 안 돼요."

<sup>4</sup> 이 경우의 해당 표현 '자신이'가 강화사인지 재귀대명사인지를 규정하기가 모호한 점이 있다. 무엇 보다는 '자신'에 '이'가 붙은 형태여서 주어와 동일한 격을 표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가'가 반드시 격조사로서만 쓰이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가'가 딸린 표현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격은 아니다. 더욱이, 해당 예들에서 볼 수 있듯, 다른 한편으로는 부사어 '스스로'와 별 문제없이 치환될 수 있다. '자신이'가 부사어 '스스로' 자리에 나타난 이 현상은 '자신'만으로는 부사어를 형성하기 어려운 한국어의 언어 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런 모호한 경우도 포함하여 강화사로 다루기로 한다. 다음 예에서 '똑바로'와 '똑바로가'는 둘 다 부사어이다. (i) 가. (의사가 환자에게) "허리를 똑바로 펴 보세요." 나. (환자가 의사에게) "(허리를 펴긴 펴는데) 너무 아파서 똑바로가 안 돼요."

독일어의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은 정치어순에서 다음 (13)의 예들과 같이 동사와 목적어 사이와 문장 끝에서 출현할 수 있다.

- (13) ㄱ. Ich schreibe selbst ein Buch.  
 ㄴ. Ich schreibe das Buch selbst.

다음 (14) ㄱ. 은 영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에 공통으로, 초점사를 지닌 문장의 일반적인 형식적 표상(representation)으로서, 역시 초점과 영향권의 두 매개 변수에 의해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강화사의 의미를 이에 준하여 (14) ㄴ.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 (14) ㄱ. 초점사 ( $\lambda x (\alpha), \beta$ )  
 ㄴ. 강화사 ( $\lambda x (\alpha), \beta$ )

### 3.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의 통사적 제약들

이 절에서는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의 다양한 통사적 제약들을 여러 절로 나누어 고찰한다. 머리에 묶인 강화사들과 관련된 명사구들은 한정 명사구(definite NP)로서, 어휘사전 (lexicon)으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고유명사 (proper noun)나 한정 표현 (definite determiner) 예컨대 지시(관형)사 (demonstrative) '이, 그, 저' 등을 수반하는 명사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과 관련된 명사구들은 한정 명사구나 비한정 명사구(indefinite NP)로서, 한정 명사구와 상호작용할 때는 머리에 묶인 강화사들과 유사한 제약을 보인다.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과 상호작용하는 비한정 명사구들은, 어휘사전으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비한정 대명사들 예들 들면 '누구(/누군가), 아무개, ...' 등 및 '누구, 아무'에 '나'가 붙은 형태인 '누구나, 아무나'와 '도'가 붙은 형태인 '누구도, 아무도, ...' 그리고 자신의 앞에 '어떤, 한, ...' 등의 비한정 표현 (indefinite determiner)을 수반하는 명사로부터 그 유래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예 (15)은 머리에 묶인 강화사들이 비한정 명사구와 상호 작용하지 않음을, 예 (16)은 그와 유사하게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이 비한정 명사구와 상호 작용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음을 보인다. 예 (17)는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이 총칭 비한정 명사구들 (generic indefinite NPs)과 보다 잘 상호작용함을 보인다 (Edmonson and Plank 1978, Siemund 2000).

- (15) ㄱ. \*한/어떤 부족의 족장 스스로가/자신이 공격을 이끌지 않았을 것이다.  
 ㄴ. \*아무개/누구나/누군가 스스로가/자신이 그 답을 알 것이다.  
 ㄷ. \*누구도/아무도 스스로가/자신이 그 답을 알지 못할 것이다.
- (16) ㄱ. ?한/어떤 부족의 족장이 스스로 공격을 이끌지 않았을 것이다.  
 ㄴ. ?아무개/누구나/누군가가 스스로 그 답을 알 것이다.

ㄷ. (?)누구도/아무도 스스로 그 답을 알지 못할 것이다.

(17) ㄱ. 부족의 족장은 스스로 공격을 이끌 수 있었다.

ㄴ. 대통령은 모든 중요한 서류에 스스로 서명해야 한다.

### 3.1. 피동화 현상과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예 (19), (21))은, 머리에 묶인 강화사들(예 (18), (20))과 달리, 피동화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머리에 묶인 강화사들은 관련 명사구가 피동화될 때 같이 피동화되어 관련 명사구를 따라가지만,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은 관련 명사구가 피동화되어도 피동화되지 않으며 따라가지 않는다(Edmonson and Plank 1978: 385, Browning 1993: 84, Siemund 2000: 103, 최규련 2001ㄹ 등).

(18) (영) ㄱ. The cook himself picked some mushrooms.

ㄴ. Some mushrooms were picked by the cook himself.

(19) (영) ㄱ. The cook picked some mushrooms himself.

ㄴ. \*Some mushrooms were picked himself by the cook.

(20) (한) ㄱ. 교장 선생님 스스로가 잡초를 뽑았다.

ㄴ. 잡초가 교장 선생님 스스로에게 뽑혔다.

(21) (한) ㄱ.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잡초를 뽑았다.

ㄴ. \*잡초가 스스로 교장 선생님에게 뽑혔다

영어에 대한 'it-분열문(it-cleft)'과 한국어에 대한 유사 분열문(pseudo-cleft sentence) 테스트에서 위의 사실-머리에 묶인 강화사는 관련 명사구를 따라 피동화되거나(예 (22) ㄱ., (23) ㄱ.),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는 피동화되지 않는다(예 (22) ㄴ., (23) ㄴ.)-은 더욱 명백해진다.

(22) (영) ㄱ. It was by the cook himself that some mushrooms were picked.

ㄴ. \*It was by the cook that some mushrooms were picked himself.

(23) (한) ㄱ. (한) ㄱ. 교장 선생님 스스로에게 뽑힌 것은 잡초이다.

ㄴ. \*교장 선생님에게 스스로 뽑힌 것은 잡초이다.

위의 예들은 영어와 한국어의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이 그 문장의 주어 명사구와 상호 작용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Siemund 2000). 이 사실은 더 나아가 이 강화사들의 초점표현이 바로 주어 명사구라는 우리의 가설 역시 지원한다(아래 절 참조). Siemund (2000: 106)는 한편으로 다음과 같이, 독일어에서는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도 피동구문에 피동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예를 제시한다.

- (24) ㄱ. Der Koch sammelte die Pilze selbst. (= 예 (18))  
 ㄴ. Die Pilze wurden vom [Koch selbst] gesammelt.  
 ㄷ. Die Pilze wurden vom Koch [selbst gesammelt].

논항들이나 부가어인 강화사들이, 이들이 자연스레 출현할 수 있는 독일어의 이른바 '중간 뜰(middle field, Mittelfeld)' -정치 어순에서 문장 내 두 번째 위치에 나타나는 인칭변화 동사와 문장 끝에 나타나는 비인칭변화동사 사이-에 출현하므로,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가 있는 피동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간 뜰에서의 논항 즉 명사구와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의 위치가 매우 근접해 있어서 마치 관련 명사구와 머리에 묶인 강화사의 출현과 같은 점에 유의하라.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가 관련 명사구와 상호 작용하며, 나아가 초점화시킨다는 우리의 가설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를 독일어의 예가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피동구문들에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가 동반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25), (26)), 이 구문들은 상응하는 명백한 능동구문에 해당 강화사를 동반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경우, 이미 피동화된 구문에 직접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가 첨가된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Edmonson and Plank 1978:385), 이 사실 또한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가, 이 자생적인 피동문의 해당 주어 명사구와 상호 작용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25) ㄱ. These cops have themselves once been arrested by the Sheriff.  
 ㄴ. \*The Sheriff has themselves once arrested these cops.  
 (26) ㄱ. 문이 스스로 열렸다.  
 ㄴ. \* (누가) 문을 스스로 열었다.

### 3.2. 주제화 (topicalisation) 현상과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

비교적 자유롭지 않은 어순을 가진 영어의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은 주제화되지 않는다. 해당 강화사가 주제화되어 문장의 맨 앞머리로 이동이 되어도, 그 신분이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가 아니라, 머리에 묶인 강화사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예 (27), (28), (29) 참조).

- (27) (영) ㄱ. I didn't repair the roof myself.  
 나는 지붕을 스스로(몸소/손수/직접) 고치지 않았다.  
 ㄴ. Myself, I didn't repair the roof. ( (27) ㄱ.)  
 스스로는 나는/나 스스로는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  
 (28) (영) ㄱ. I asked the tiler to repair the roof. I didn't do it myself.  
 나는 지붕 고치는 사람에게 지붕을 고치라고 시켰다. 나는 지붕을 스스로(몸소/손수/직접) 고치지 않았다.



ㄴ. I asked the tiler to repair the roof. ?Myself, I didn't do it.

나는 지붕 고치는 사람에게 지붕을 고치라고 시켰다. ?스스로(몸소/손수/직접) 나는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

(29) (영) It was my brother who repaired the roof. Myself, I didn't do it.

내 동생이 지붕을 고친 사람이다. 스스로는 나는/나 스스로는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

반면,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 독일어 (예 (30))의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은 대체로 주제화(topicalised) 될 수 있다 (Siemund 2000: 107-109, 최규련 2001ㄷ). 즉 한 문장의 맨 왼쪽 앞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문장에 일반적으로 핵강세가 둘 있는 이중 억양구조가 함께 도입된다 (Jacobs 1982, 1986, 1996, Siemund 2000). 다음 예들은 위의 영어 예들에 상응한다.

(30) (독) ㄱ. Ich habe mein Dach nicht selbst repariert.

ㄴ. SELBST habe ich mein Dach// NICHT repariert. (= (18))

(31) (독) \* SELBST habe ich mein Dach nicht repariert.

그러나, Siemund (2000)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머리에 묶인 강화사와 같은 해독을 이 경우의 강화사 해독에서 배제할 수 없다.

(32) (독) ㄱ. Ich habe den Dachdecker beauftragt, das Dach zu reparieren. Ich habe das nicht selbst gemacht.

ㄴ. Ich habe den Dachdecker beauftragt, das Dach zu reparieren. Selbst habe ich das nicht gemacht.

(33) (독) Mein Bruder war derjenige, der das Dach repariert hat. Selbst habe ich das nicht gemacht. (= (29))

한국어에서는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에 '는'을 붙여, 다음과 같이 주제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와 머리에 묶인 강화사의 경계가, 독일어의 경우와 비슷하게, 사실상 모호해진다.

(34) 나는 지붕을 스스로 고치지 않았다. 스스로는 나는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제화된 한국어와 독일어 강화사의 경우,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와 머리에 묶인 강화사를 엄격히 구별할 수 없게 될 수가 있는데, 주제화(topicalisation) 현상을 대조<sup>5</sup>의 기제(a device of contrast)로 볼 때, 이는 또한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의 초점화 대상이 관련 명사구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이다.

<sup>5</sup> 장석진 (2000a)에 의하면, 대조성은 "담화상황에서 대체할 지시체의 집합에서 여타 지시체를 버리고 특정 지시체를 화자가 선택하는 데에서 연유한다".

### 3.3. 영향권 관련 요소들과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

강화사들은, 머리에 묶인 강화사들이나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주요(원형적) 초점사들과는 대조적으로, 비주요(비원형적) 초점사 '곧', '꼭', '바로', '하필'이 공유하는 영향권 관련 특성을 또한 공유하고 있다. 양화사와 초점사의 선순서(the linear sequence)에 있어서의 변화는 주요 초점사들의 경우 보통 의미의 변화를 초래한다(최규련 ibid.).<sup>6</sup> 그러나 이들 강화사들은 동일한 문장 내에서의 이러한 '영향권 내포' 요소인 선순서에 관한 민감하지 않다. 다음 (35), (36)의 문장들은 이 선순서 영향권 문제와 관련하여 완전히 유의적(synonymous)이다.

- (35) ㄱ. 사장 스스로가/자신이 차를 운전했다.  
 ㄴ. 차를 사장 스스로가/자신이 운전했다.
- (36) ㄱ. 사장이 스스로/자신이 차를 운전했다.  
 ㄴ. 스스로/\*자신이 사장이 차를 운전했다.  
 ㄷ. 사장이 차를 스스로/자신이 운전했다.

그러나, 독일어의 경우는, 부정 요소인 'nicht'가 강화사와 관련하여 그 영향권을 달리 할 때 관련 문장의 해독이 달라질 수 있다 (König 1991, König and Siemund 1996, 1998 etc., Siemund 2000 등 참조).

- (37) (독) Paul hat die Aufgabe nicht SELBST selbst gelöst. (exclusive reading)  
 (영) 'Paul has not solved the problem himself.'  
 (한) '둘이는 그 문제를 스스로 풀지(는) 않았다.'
- (38) (독) Paul hat die Aufgabe SELBST nicht gelöstst. (inclusive reading)  
 (영) 'Paul has not solved the problem himself.'  
 (한) '둘이는 그 문제를 스스로 풀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영어와 한국어의 번역 예들을 보자. 영어의 경우는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지 않은 특성상 부정 요소 'not'의 위치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부정 요소에 의한 영향권 문제에 민감하지 않다. 다만 제외 해독과 첨가 해독을 다 허용하므로 중의적이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는,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보유하나, 부정 요소 '않다'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독의 중의성을 역시 보인다. 다만 대조를 나타내

<sup>6</sup> 다음 예들은 한국어의 주요 초점사인 '다만'과 '만'이 영향권에 민감한 선순서(the linear sequence)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인다. 최규련(1998) 참조. 예문의 번호는 최규련(1998)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44 ㄱ). 그는 자주 다만 순이를/자주 순이만 만난다. (그가 하는 일은 자주 순이를 만나는 것이다.-넓은 영향권)

(44 ㄴ). 다만 순이를/순이만 그는 자주 만난다. (그가 만나는 사람은 순이이다.-좁은 영향권)

는 '는'이 붙는 경우에는 제외 해독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또한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와 관련 주어 명사구와의 밀접한 상호 작용을 추정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 4. 초점과 영향권 문제

최규련 (2001)에서는 강화사들의 세 가지 용법들 모두를 초점사의 한 유형 곧 비원형적 초점사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강화사의 세 용법에서 모두, 초점과 영향권의 두 매개 변수에 의해 이들이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강화사의 다의성을 인정하면서, 세 용법 모두 관련 명사구를 초점으로 하는 전체 문장 영향권을 보유한다고 간주한다. 이 입장은 선행 연구들과는 다른 것이다.

강화사의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서, 모두 초점과 영향권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앞선 연구로 König(1991 등), Siemund(2000 등)과 Primus(1992)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Primus(1992)의 예들과 그 표상에 입각한 한국어의 예로서, 예 (39)는 머리에 묶인 강화사 (40)은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의 표상이다.

- (39) ㄱ. 포로 스스로가/자신이 웃었다.  
 ㄴ. 스스로/자신' ( $\lambda X^{NP}$ [웃었다'(X)],  $^{NP}$ 포로')

- (40) ㄱ. 판사가 스스로 거기에 나타났다.  
 ㄴ. 스스로/자신'[ $\lambda X^{VP}$  [(X) 판사'],  $^{VP}$ 거기에 나타났다']

Primus(1992:81)에 의하면 위 (40)의 초점값에 대한 선택후보들은 판사의 다른 행동들로서 주어진 상황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sup>7</sup>

- (41) 판사가 거기에 나타났다.  
 ㄱ. 그는 보고들(만)을 신빙하지 않았다.

<sup>7</sup> Primus (1992: 71, 81) 참조. 예들의 번호는 그녀의 것을 그대로 옮김.

- (63) (a) der Gefangene SELBST lächelte.  
 포로 스스로가/자신이 웃었다.  
 (b) SELBST' ( $\lambda X^{NP}$ [lächelte'(X)], NPder\_gefängene')  
 스스로/자신' ( $\lambda X^{NP}$ [웃었다'(X)],  $^{NP}$ 포로')
- (91) (a) der Richter erschien SELBST dort.  
 판사가 스스로 거기에 나타났다.  
 (b) ELBST'[ $\lambda X^{VP}$  [(X) der\_Richter'],  $^{VP}$ dort\_erschien']  
 스스로/자신'[  $\lambda X^{VP}$ [(X), 판사'],  $^{VP}$ 거기에 나타났다']

- ㄴ. 그는 자기의 보좌역(만)을 보내지 않았다.  
 ㄴ. <?>그의 보좌역(만)이 (거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Primus(1992:81)에 의하면, 위의 (41) ㄴ.이 동사구를 수식하는 강화사가 즉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가, 동사구 밖에 있는 명사구를 초점화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무효화시킨다는 것이다. (41) ㄴ.이, (41)이 '판사 스스로가/자신이 거기에 나타났다'와 유의적인 해독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는 것인데, 그녀 스스로 이 사실이 '판사'가 초점일 경우에도 부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다음과 같이 '다만/단지/오직/오로지'<sup>8</sup>에 해당하는 'nur'를 넣은 문장을 연결시켜, 강화사가 동사구를 초점화한다는 논지가 처한 곤경을 헤쳐나가려고 시도한다.

- (42) Der wandernde Rhasode brachte sie nicht selber zu Papier, er erzählte sie nur.  
 '그 음유시인은 그 서사시를 스스로 종이에 적은 것이 아니다. 그는 그것을 다만 읊었을 뿐이다.'
- (43) Rubens stellte beschädigte Zeichnungen selbst wieder her, er fertigte sie nicht nur an.  
 '루벤스는 훼손된 그림을 스스로 다시 그렸다. 그는 그것을 제작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사실들에 근거하여 Primus(1992)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첫째로, 위 (41) ㄴ.의 해독이 한국어에서는 결코 그녀가 생각하듯 불가능한 해독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해당 예 앞의 ?는 그녀가 붙인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한국어에서는 붙이지 않아야 오히려 옳다. 그래서 < >안에 넣었다. 독일어의 경우에도, 어순을 달리하면 (41) ㄴ.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다. 둘째로, 위 (42), (43)에 관련된 초점값의 선택후보들을 명시하는 것에 의해서 관련된 초점이 무엇인지를 판가름해 볼 수가 있다.<sup>9</sup> 아래에서 보듯, 관련 명사구를 초점으로 하는 선택후보들이 명시된 문장들 (44),(45)가, (42),(43)과 별 무리없이 공통텍스트를 이룬다. 이 경우

<sup>8</sup> 영어의 "나 독일어의 "도 각각 ", " 등의 유의적인 표현들이 있어서 문맥에 따라 서로 치환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한국어의 '다만'도 '단, 단지, 오직, 오로지, 유독, ...' 등의 유의적 표현들과 서로 치환되기도 하고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기도 한다. 이들 제외 초점사군의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다만'을 필자의 다른 논문들에서도 써 왔고 여기에서도 쓴다. 전통적 품사 분류상 조사류에 속하는 '만'이 출현 빈도상 '다만'류 중 가장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뿐'도 분포상의 제약이 다른 종류의 표현들 보다 더 많다는 점 외에는 대체로 이 부류의 기본의미 기능과 속성들을 보인다.

<sup>9</sup> 독일어의 표현들 'nicht nur', 'nicht'는 어순 및 영향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현들로서, 이들에게 타당한 출현 위치를 부여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 된다.

- (i) Nicht nur sein Assistent erschien dort, der Richter erschien selbst dort.  
 (ii) Der Richter erschien selbst dort, sein Assistent (erschien dort) nicht.

그녀가 덧붙인 문장들은 강화사가 있는 문장들이 서술하는 것을 부연 서술하는 문장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44) 그 음유시인은 그 서사시를 스스로 종이에 적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다만 읊었을 뿐이다. (그 음유시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음송) 서사시를 종이에 적었다.

(45) 루벤스는 훼손된 그림을 스스로 다시 그렸다. 그는 그것을 제작만 한 것이 아니다. 루벤스의 제자들이나 후세 사람들이 그의 훼손된 그림을 다시 그린 것이 아니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상태(state)나 과정(process)을 나타내는 서술(predication)의 경우에, 관건이 되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self-action)'이 아닌 '스스로의 관여(self-involvement)' 문제라는 것이다. 앞에서 든 예를 다시 살펴 보자.

(46) 나는 스스로 가난했기에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나도 가난하다"라는 상태 서술이며, 첨가 해독의 예로 관련 연구들에서 들어지는 예들과 상응한다. 이 경우 관련된 선택후보들은 '다른 이들'이고 초점값은 '나'이다.

(47) 나는 스스로 검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검도를 배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이 예 (47)은 "다른 이들이 검도를 배우고 있고 그리고 나도 검도를 배우고 있다"라는 과정 서술이며, 첨가 해독이 된다. 역시 관련된 선택후보들은 '다른 이들'이고 초점값은 '나'이다. Edmonson and Plank (1978:383-384)는 이러한 '스스로의 관여(self-involvement/directness of involvement)'를 나타내는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을 다음 (48), (49)와 같이 제시한다. 한국어 예문은 이에 상응한다.

(48) (영) She is (herself) a student (herself).

(49) (독) Sie ist (selbst) eine Studentin (\*selbst).

(50) (한) 그녀가 스스로 대학생이다.

한편, 다음 (51), (52)와 같은 실례를 통하여 우리는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가 초점사 '다만, 단지, 오직, 오로지, 만, 역시, 또한, 도...'등과는 달리, 비록 출현 위치상으로는 동사구를 수식하고 있으나, 초점화시키는 것은 관련 명사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1)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게 하니 아이가 혼자서 부쩍 크는 느낌이었던다는 것이 그의 설명. 대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아들을 꼭 껴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었

다고. (2001년 6월호 여성중앙 - 강은영기자 <사람과 화제: IQ 175 13살 아들을 포항공대 대학생으로 만든 보통 아버지 송재열씨> 중)

- (52) 그는 아들을 키우면서 제일 조심한 것이 스스로 무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털어놓는다. 어른들 잣대로 아이들 창의성을 짓밟는 게 머리 좋은 아이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 (2001년 6월호 여성중앙 - 강은영기자 <사람과 화제: IQ 175 13살 아들을 포항공대 대학생으로 만든 보통 아버지 송재열씨> 중)

위의 예문들을 논의의 편의상 간략히 아래와 같이 바꾸어 보면, '스스로의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관여'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 (53) 아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한다. - 부모가 관여하지 않는다.  
 (54) 아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 부모가 관여한다.

이제 우리는 위의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머리에 묶인 강화사나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 둘 다 머리 즉 관련된 명사구를 초점화하며, 동사구를 초점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더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이 그들의 초점으로 한 절(또는 문장)의 주어 곧 동사구가 아니라 관련 명사구를 선택한다는 가정은, 강화사들과 그들이 들어있는 구(또는 문장)의 주어 사이에 일종의 의미상의 일치가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König 1991:91). 앞서 언급했듯, 이 종류의 영어 강화사들이 주어와 인칭, 성 그리고 수에서 일치를 보인다는 점은 언어 보편적인 특성이 아닌 개별 언어적인 특성이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이 강화사들은 특정한 주어 즉, 사람 및 유정물 또는 그에 준하는 것, 태양이나 사람 등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빛, 열 등을 내고 또는 특정한 작업을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별, 컴퓨터, 로봇, 기계 등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하여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위의 Primus (1992)의 입장에 대한 또다른 반증을 제공한다.

- (55) 이봉주가 자신의 세계 신기록을 스스로 켜다.  
 (56) 우리 사회가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  
 (57) 4살박이 아이가/강아지가/\*바람이 그 문을 스스로 열었다.  
 (58) 반딧불은/별은 스스로 빛을 낸다.  
 (59) 컴퓨터가 스스로 파일을 저장한다.  
 (60) 로봇트가 스스로 밥짓고 빨래한다.  
 (61) 스위치만 켜면 기계가 스스로 작동한다.

(62) 고속열차가 운행도중에 스스로 멈춰 섰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König(1991 등), Siemund(2000 등)의 주장 - 강화사가 머리에 묶인 용법(head-bound-intensifier)으로 쓰일 때는 그 강화사의 초점과 영향권이 다 관련 명사구라는 -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Primus(1992)는 이들과 달리 초점은 관련 명사구이고 영향권은 전체 문장이라고 본다는 것은 앞서 이미 언급했다. König(1991:90-92)는 다음 (63), (64)에 상응하는 예들을 들고, 머리에 묶인 강화사들은 결코 부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은 부정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정을 제 영역속에 포함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강화사가 부정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와 머리에 묶인 강화사를 구분하는 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강화사의 영향권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래 (64) ㄱ의 강화사는 첨가 기능 -예컨대, 답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을 하는 것으로, (64) ㄴ의 강화사는 제외 기능 =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 예컨대, 그의 운전기사가 씻었다 -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독할 수 있다고 본다.

(63) 대통령 스스로가/자신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Der Präsident selbst wird nicht an der Konferenz teilnehmen.

(64) ㄱ. Der Lehrer weiss die Antwort selbst nicht.

선생님이 스스로 답을 알지 못했다.

('The teacher does not know the answer himself')

ㄴ. Der Direktor wäscht sein Auto nicht selbst.

사장이 스스로 자기 차를 씻은 것이 아니다.

('The Director does not wash his car himself')

이에 반해 Siemund (2000:48-49)는 다음 예들 (65)의 각각에 모두 (66)의 예들이 연결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머리에 묶인 강화사들도 제외 해독 -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은 알았다 -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5) ㄱ. I myself had no clue at all. 내 스스로가/자신이 조금도 몰랐다.

ㄴ. Myself, I had no clue at all. 내 스스로는/자신은 조금도 몰랐다.

ㄷ. I had myself no clue at all. 나는 스스로 조금도 몰랐다.

(66) ㄱ. My brother would have known the answer to such a difficult question.

내 동생은 그런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을 텐데.

ㄴ. John had already heard that Mary was going to marry.

John은 mary가 결혼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이것은 머리에 묶인 강화사들도 부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즉 문장 전체가 이들의 영향권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König (1991:90-92)의 위의 두 주장 곧 머리에 묶인 강화사가 부정의 영향을 결코 받지 않는다는 주장과 따라서 머리에 묶인 강화사는 문장전체를 영향권으로 하는 초점과 상호작용한다는 주장은, 따라서 둘 다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한국어의 경우를 살펴 보자. 다음 예 (67)은 한편으로 첨가 해독 -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있다 -이 가능한 반면에, 강화사에 '는'을 덧붙이거나 '참석하지'에 '는'을 첨가하면, (68) ㄴ. 같은 제외 해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달리 말하면, 머리에 묶인 강화사도 부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강화사의 영향권도 문장전체이다.

(67) 대통령 스스로가/자신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68) ㄱ. 대통령 스스로는/자신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ㄴ. 대통령 스스로가/자신이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비서관이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 5. 중심 (center)과 주변 (periphery) 그리고 관여의 직접성 (directness of involvement)

앞 절에서 논의했듯, 머리에 묶인 강화사와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가 모두 관련 명사구를 초점화하고 관련된 열린 문장전체가 이들의 영향권이라면, 전자와 후자 사이의 통사적 분포상의 차이 곧 출현 위치와 수식하는 대상의 차이가 야기하는 의미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선 양자 사이의 의미상의 공통점은 고려되는 선택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곧 크게 둘 - 중심(인물)(center) 그리고 관련된 주변(인물)(periphery) -로 대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차이점으로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전자가 주로 중심(인물)(center) 그리고 주변(인물)(periphery)으로 관련 대상들을 양분하는 것과는 달리, 후자는 동사구를 수식하는 특성상, 이 강화사가 들어 있는 문장에서 관련 명사(term)가 관련 서술(predication)에 '관여하는 정도가 보다 직접적'(directness)이라고 추가적인 분석을 더할 수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Edmonson and Plank 1978, König 1991, Siemund 2000).

논의의 편의상 위 (14)를 다시 쓴, 다음 (69) ㄱ.과 ㄴ.은 초점사와 강화사 -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 포함 -를 지닌 문장의 일반적인 형식적 표상(representation)인 바, 이들이 초점과 영향권이라는 두 매개변수에 의해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바를 형식화한 것이다.

(69) ㄱ. 초점사 ( $\lambda x (\alpha), b$ )



ㄴ. 강화사 ( $\lambda x (\alpha), b$ )

이러한 강화사는 초점사와 마찬가지로, 초점과 영향권 외에 척도<sup>10</sup> 및 평가라는 매개변수에 의해서도 문장의 의미에 기여한다.

강화사는 반드시 문맥상 관련된 한 척도를 도입한다(König 1991, Primus 1992, Siemund 2000 등). 따라서 강화사는 관련된 초점값을 관련된 척도상에서 '최대(maximal) 값이나 '최소(minimal)' 값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척도의 전환에 의해 '최대(maximal)' 값으로 평가되는 관련된 초점값이 '최소(minimal)' 값으로 평가되고, '최소(minimal)' 값으로 평가되는 관련된 초점값이 '최대(maximal)'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70) ㄱ.과 같이 초점사나 강화사를 지닌 문장은 (70) ㄴ, (70) ㄷ과 같은 평가들을 함축할 수 있다.

(70) ㄱ. 초점사/강화사 ( $\lambda x (\alpha), \beta$ )<sup>11</sup>

ㄴ. 최대<sub>c</sub> ( $\lambda x (\alpha), \beta$ )

ㄷ. 최소<sub>c</sub> ( $\lambda x (\alpha), \beta$ ) (c:발화의 한 문맥)

이러한 척도와 관련된 평가들(최대, 최소)은 표준 함의도 아니지만, 전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평가들은 근본적으로 지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비진리조건적 의미의 한 면인 고정 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sup>12</sup>으로 볼 수 있다. (Grice:1975, Levinson:1979, 1983 König:1991, 최규련 2001 ㄱ/ㄷ 등 참조)

(71) ㄱ. 스스로/자신 [  $\lambda x (x(\text{가/이}) \text{왔다}), \text{대통령}$  ]

ㄱ'. 심지어//까지/마저/조차 [  $\lambda x (x(\text{가/이}) \text{왔다}), \text{대통령}$  ]

ㄴ.  $(\exists x) [(x \neq \text{대통령}) \ \& \ \text{왔다}(x)]$

ㄷ.  $(\forall x) [ [(x \neq \text{대통령}) \ \& \ \text{왔다}(x) \rightarrow \text{초과}(\text{있음직함}(\text{왔다}(x))), (\text{왔다}(\text{대통령})) ] ]$

ㄹ. 최대<sub>c</sub> [  $\lambda x (x(\text{가/이}) \text{왔다}), \text{대통령}$  ]

(72) ㄱ. 스스로/자신 [  $\lambda x (\alpha), \beta$  ]

<sup>10</sup> 척도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대조적인 표현들의 집합 - 순서 배열로 된 집합 즉, 예를 들면, 양화 척도, 척도 형용사들의 의미에 깔려 있는 척도, 또는 시간 척도 등(Löbner1991, 최규련 ibid. 참조) - 인데, 의미강도에 따라 하나의 선상에 등급에 따라 배열될 수 있다. 따라서 척도는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언어표현들  $\langle e_1, e_2, e_3, \dots, e_n \rangle$ 의 집합이다 (Horn 1972, Gazdar 1979, König:1991: 39 참조) :

(i) ㄱ.  $e_1$ 이  $e_2$ 에 문장 틀 S에서 대치되면 우리는 잘 이루어진 문장을 얻는다.

ㄴ.  $Se_1$ 은  $Se_2$ 를 함의하고,  $Se_2$ 는  $Se_3$ 를 함의하고, ...그러나 그 역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sup>11</sup> 초점표현은 람다( $\lambda$ )-연산자로 묶여 있는 변항으로 대체된다. 뺄혀 나온 표현은 오른쪽으로 옮겨지고 초점사는 이 연산 결과의 맨 앞에 덧붙여진다(König 1991a/b, 최규련 1999 ㄴ 등).

<sup>12</sup> Levinson은 고정 함축들을 그 본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지시적이라고 간주한다. 즉, 문맥의 한 면과 언어 형태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ㄱ'. 심지어//까지/마저/조차 [  $\lambda x (\alpha), \beta$  ]
- ㄴ.  $(\exists x) [(x \neq \beta) \& \alpha(x)]$
- ㄷ.  $(\forall x) [ [(x \neq \beta) \& \alpha(x) \rightarrow \text{초과 (있음직함 } (\alpha(x)), (\alpha(\beta)))]$
- ㄹ. 최대<sub>c</sub> [  $\lambda x (\alpha), \beta$  ]

위와 같은 예들에서 보듯, 해당 강화사와 초점사가 관련된 초점값(대통령)이, 관련된 열린 문장을 만족시키는 값으로 고려 대상인 선택후보들의 값에 비하여, 높거나 극단적 경우(Jacobs 1983, 1986, König 1991 등)로, 가장 직접적인 관여의 경우로(Edmondson and Plank 1978)로, 가장 기대하지 않은 경우(F. and L. Karttunen 1977, Karttunen and Peters 1979 등)로 또는 정보성이 보다 현저한 경우(Kay 1987, 1990, König 1991 등) 등으로 상정된다. 즉, 고려대상인 선택후보들(장관들, 대통령의 비서관 등)은 열린 문장의 변항 'x'를 위해 덜 높거나 보다 극단적이지 않은 값들로, 보다 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로, 보다 덜 기대한 경우로 또는 정보성이 덜 현저한 값들로 포함된다.<sup>13</sup>

머리에 묶이지 않은 용법(non-head-bound-intensifier)의 강화사가 도입하는 척도와 척도 초점사들이 도입하는 척도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전자의 경우, 관련된 명사구가 지시하는 값이 '중심(center)' 인물 또는 사물이고, '중심' 인물이나 사물의 '주변(측근, 주변 사람들, ...등)(periphery)' 인물이나 사물이 선택후보들로 고려된다. 후자의 경우, 다양한 선택후보들이 관련된 '정상적인(원형적인)' 척도가 도입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점값과 고려되는 선택후보들의 값들이 '중심(center)'과 '주변(periphery)'으로 양분되고 제한되는 척도가 도입된다(König 1991 등).

다음 예 (73), (74)에서는 '중심(center)'과 '주변(periphery)'이 텍스트 상에 명시되어 있다(König 1991, Siemund 2000 등). 친척이나 친구 관계 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자립적인 표현들 혹은 정보성이 현저한 경우 등이 '중심(center)'이 되고 자립적이지 않은 표현들 혹은 정보성이 덜 현저한 경우 등이 '주변(periphery)'이 된다. 그 역의 경우는 대체로 '성립되지 않는다'.

(73) 순이의 친척들이 농촌에서 살고, 순이가 스스로 농촌에서 산다. 순이가 농촌 생활이 어떻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74) ㄱ. (평양에는 장관과 비서가 가기로 했었다. 사정이 생겨)

비서가 평양에 가고 장관이 스스로 가지(는) 않았다.

ㄴ. ? 비서가 스스로 가지 않고 장관이 갔다.

이 경우, '중심(center)'과 '주변(측근, 주변 사람들, ...등)(periphery)'에 관련된

<sup>13</sup> 여기서는 각각의 견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Kay(1987, 1990), König(1991), 최규련(준비 중) 참조.

양분 현상으로 변이된 관련 척도 (비원형적 척도)<sup>14</sup>의 특수성을 고려한다해도, 척도 도입이라는 기능의 공통 분모는 남는다. 양분되어 배열된 값들의 척도상에서 초점값에 대한 '최대'나 '최소' 평가 기능이 수행되며 다양한 기능들 사이의 일종의 의미상의 일치에 기여한다고 간주될 수 있다.

## 6. '제외(restriction/exclusion)'와 '첨가(inclusion/addition)'

초점사들은 그들의 영향권내 열린 문장의 변항을 위한 가능한 값들로 그들의 초점값에 대한 선택후보들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한국어의 초점사는 대체로 다음의 두 주요 부류로 나누인다(최규런:1997, 1998 ㄱ/ㄴ, 1999 ㄱ/ㄴ/ㄷ/ㄹ/ㅁ, 2000 ㄱ/ㄴ/ㄷ 등).

- (75) ㄱ.  $(\exists x)_x \neq \beta \alpha(x)$  (첨가 초점사: 역시, 또한, 도, 이미, 아직, 심지어, 까지/마저/조차, 특히 ...)
- ㄴ.  $(\forall x)[\alpha(x) \rightarrow (x = \beta)]$  (제외 초점사: 다만, 단, 단지, 오직, 오로지, 만, 밖에 + 부정(否定), 겨우, 꼭, ...)

(75) ㄱ.에 속하는 첨가 초점사 '역시, 또한, 도'는 열린 문장의 해당표현과 관련있는 선택후보들의 값들의 집합에 초점표현과 관련된 값을 단순 포함 또는 첨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규런 2001ㄴ 등). (75) ㄴ.에 속하는 제외 초점사 '다만, 단, 단지, 오직, 오로지, 만'이 문장의미에 하는 기여는, 초점표현과 관련된 열린 문장의 값으로서 고려되는 값들의 여집합(complement)을 제외하는 것이다 (최규런 1998 ㄴ 등).

강화사들은 이러한 존재 전제 유발 문제와 제외 함의의 보유 여부 문제에 관련하여 두 가지 부류로 구별될 수 있다는 점, 즉 척도 첨가 초점사로서의 용법에서는 존재 전제를 유발한다고 간주되나 나머지 두 용법에 있어서는 척도 첨가 초점사와 같은 존재 전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규런 (2001 ㄱ)에서 논의되었다.

앞선 연구들 중에서도 특히 Edmonson and Plank (1978)에서는 주로 '제외' 해독의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을 논의하였는데, Plank (1979a)에서는 주로 '첨가' 해독의 이 부류 강화사들을 논의하여 강화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해독들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한편, König (1991)는 이 강화사들이 들어있는 문장의 '제외'나 '첨가' 해독은 강화사 자체의 기능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문맥조건들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최근의 Siemund (2000)는 대부분의 실례들에서 이 강화사들이 '제외'와 '첨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강화사들을 다시 두 가지로 하위분류하고 이들의 다의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Siemund (2000 등)는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를 다음 예 (76) ㄱ., ㄴ.과 같이 제외 기능과, 예 (77) ㄱ., ㄴ.과 같이 첨가 기능으로 나눈다.

<sup>14</sup> 원형적 척도란, 예컨대, 첨가 초점사 '심지어, 까지/마저/조차'가 문맥과 관련하여 도입하는 경우의 척도에 해당한다. 강화사가 도입하는 비원형적 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척도상에 배열된 값들이 덜 제한되어 있다.

- (76) ㄱ. He wrote the article himself/alone/on his own/anyone's help. (exclusive use)  
 ㄴ. The managing director appeared himself/personally.
- (77) ㄱ. I can speak Russian myself. (inclusive use)  
 ㄴ. I cannot help you right now. I'm working myself.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 최규련 (2001 ㄱ)에서는, 강화사들이 초점사의 기능을 대체로 수행하고 있으나, 첨가 초점사나 제외 초점사로 양분할 수 있는 원형적 초점사가 아닌 비원형적 초점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존재 전제도 유발하지 않고 제외 함의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 즉 이 문제에 있어서 정해져 있지 않고 모호(vague)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가 수행하는 의미기능을 '제외'와 '첨가'로 분류할 수 있는지 (siemund 200 등), 즉 이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가 다의적인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강화사 일반에 대한 논의를,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의 하위분류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류의 강화사의 다의성을 원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는 그 의미기능이 '제외'나 '첨가' 어느 한쪽 기능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한 모호하다. 이 문제에서는 관련된 문맥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강화사 일반에 대해 최규련 (2001 ㄱ)에서 사용한 테스트들과 논의를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의 해당 기능들 분석에 적용하여 이 문제를 원론적으로 살펴 보겠다. 다음의 예들 (31)에서 일반적인 테스트들인 함의 테스트와 담화수용성 테스트에 의해 문제의 강화사들이 첨가 초점사와 같은 존재 전제 유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함의 테스트는 전제들이 그들의 수반 문장들의 함의의 한 형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래서 A가 B를 전제할 때는 언제나 화자는 A를 발화하고 동시에 not-B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아마 not-B 그리고/혹은 A'의 단언은 명백한 모순을 초래한다. 담화 수용성 테스트는 보통 함의들에 반(反)해서 전제들을 맞춘다. A가 B를 전제하면 언제나 'B 그리고 A'의 연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담화의 한 편을 형성해야 한다.

- (78)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다. (존재 전제 불성립)  
 ㄱ. (명백한 모순이 성립하지 않음) 아마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스스로(/자신이) 왔다.  
 ㄴ. (담화 수용 가능) 다른 사람이 왔다.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자신이) 왔다.

존재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첨가 기능이 첨가 초점사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 고유의 기능이 아니라는 점과 상통한다.

그렇다면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의 제외 기능은 문맥 조건들을 도외시킬 수 있는 이들의 고유의 기능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최규런 (2001 7)에서는, 위에서 기술된 제외 초점사 '다만'과 '만' 같은 제외 함의( $\beta$ 가 아닌 다른 사람은  $\alpha$ 하지 않았다)는, 강화사가 있는 문장은 문맥에 따라 보유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제 이 사실을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의 예를 들어 논의에 적용해 보겠다.

- (79) ㄱ. 하나님이 스스로(/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는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

- (80) ㄱ. 돌이가 스스로(/자신이) 순이를 사랑한다.  
 ㄴ. 돌이 아닌 다른 사람은 순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 (79)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천지창조를 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제외 함의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80)에서는 그러한 문맥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 함의가 보유되지 않는다. '제외' 기능 역시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 고유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외'로 해독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오히려 '첨가'로 해독되는 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König 1991: 92 참조).

- (81) 가: 현이 엄마, 나 오늘 외출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 좀 봐 주시겠어요?  
 나: 난 오늘은 댁의 아이들을 봐 줄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외출해요.

- (82) 가: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 주시겠어요?  
 나: 돈을 빌려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돈이 부족하거든요.

## 7. 동일성의 강조 단언(emphatic assertion of identity)

최규런 (2001 7)에서는, 강화사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특수한 의미기능의 하나로 '동일성의 강조 단언(emphatic assertion of identity)'을 들고 있다.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가 수행하고 있는 동일성의 강조 단언 또한 아래 예 (83) 같이 추상화되고 표상될 수 있다 (Atlas & Levinson 1981 참조).<sup>15</sup>

- (83) ㄱ. 대통령이 스스로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ㄴ.  $((\lambda x)(x = \text{대통령}) (\tau x (\text{지지하-}(\text{햇볕정책}, x)))$   
 ㄷ.  $B (\tau x A (x)) = (\exists x) A (x) \ \& \ (\forall x)(A(x) \rightarrow B(x))$

<sup>15</sup> 해당 예 (83)에서 쓰인 표현형식에서 연산자  $\tau$ 는 예를 들면 Atlas & Levinson(1981)이 그들의 분열문(cleft sentence)에 대한 분석에서 쓴 '수집 연산자(collection operator)'이다. 이 연산자는 명사구(名辭句 term phrase)를 형성하기 위해서 열린 문장과 결합한다(König 1991, 최규런 1999 7).

위 예문 (83) ㄱ.은 다음 (84)와 같이 분석될 수 있고, (85)은 그 부정 대응이다(Atlas & Levinson:1981, 52, König 1991:129 참조).

- (84) '대통령이 스스로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 ㄱ.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를 함의한다.
  - ㄴ. '어떤 사람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를 함의한다.
  - ㄷ. '(정확하게) 한 사람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를 함의하지만 전제하지는 않는다.
  - ㄹ.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 (85) 대통령이 스스로 햇볕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 ㄱ.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를 함의한다.
  - ㄴ. '어떤 사람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를 전제하거나 (그 용법이 '어떤 사람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를) 함축한다.
  - ㄷ. '(정확하게) 한 사람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를 전제하지 않는다.
  - ㄹ.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 8. 공통의 기본의미

이제 우리는 영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 공통의, 초점(focus)과 영향권(scope)에 관련된 강화사들의 머리에 묶이지 않은 용법의 기본의미를,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는 바, 이것은 이 용법의 강화사들이 각각 동일한 언어 내에서의 다른 용법들의 강화사들과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의 핵 즉 의미의 공통분모에 해당한다(최규련 2001 ㄱ).

- (86) ㄱ. X-self/selbst/스스로/자신 [  $\lambda x (\alpha), \beta$  ]  
 ㄴ. 최대<sub>c</sub> [  $\lambda x (\alpha), \beta$  ]

## 9. 요약 및 맺는 말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영어, 독일어 강화사의 세 하위 부류인 척도 첨가 초점사 용법, 머리에 묶인 용법, 머리에 묶이지 않은 용법의 강화사 중 머리에 묶이지 않은 용법(부사적 용법의 강화사)의 강화사인 '스스로(/자신이)'의 통사적 속성들과 의미 기능들을 기술하고 분석하며 서로 다른 세 언어를 이 강화사 현상과 관련하여 비교하는데 있었다.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은, 세 언어에서 공히, 출현하는 위치가 머리에 묶여 있지 않다. 또한, 머리에 묶인 강화사들과는 달리, 관련 명사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한정 명사구나 비한정 명사구 중 어느 한 쪽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 피동화는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이미 성립된 피동문에 첨가될 수는 있다. 독일어의 경우는 개별언어의 특성을 보이는 피동화 구문을 찾아볼 수 있다.

주제화는 영어의 경우 실현될 수 없으나, 한국어와 독일어의 경우는 실현되지만 강화사 신분이 머리에 묶인 강화사와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 사이에서 모호하게 된다.

영향권 관련 요소의 하나인 선순서는, 의미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변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특히 독일어의 경우 문제가 되는 또다른 영향권 관련 요소 'nicht (부정 요소)'는 강화사가 이 부정 요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그 해독에 영향을 미친다. 영어는 부정요소의 문장 내 위치가 변하지 않는 비교적 자유롭지 않은 어순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정 요소에 관한 한 영향권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며 따라서 중의적이다. 한국어의 경우는, 부정 요소의 위치 변동이 아니라 강화사에 '는'이 붙는 경우 제외 해독을 유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의적이다. 즉 부정 요소 자체에 관한 한 영어의 경우처럼 영향권 문제에 민감하지 않다.

머리에 묶이지 않은 용법의 강화사들은, 주요 초점사에 속하는 '심지어, 까지/마저/조차'에 상응하는 기능을 보이는 척도 첨가 초점사로서의 용법 그리고 관련된 명사구를 수식하는 머리에 묶인 용법들과는 달리 동사구 또는 문장전체를 수식하는 통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강화사들은 문장내에서 핵강세를 받고, 문장 내 출현 위치가 한국어의 정치어순의 경우, 주어와 목적어 또는 동사 사이이다. 핵강세 보유를 통해 문장의 억양구조에 관여하고, 출현상의 위치 선정과 이동에 있어서 유연함을 보인다.

이 강화사들은 한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초점 및 그 영향권과의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또한 문맥상 관련된 척도를 도입하며,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는, 척도 첨가 초점사로서의 용법에서 도입되는 척도 또는 척도 첨가 초점사 '심지어//까지/마저/조차'의 그것과는 달리, '중심(center)'과 '주변(periphery)'으로 나누인 특수한 척도 (비원형적)를 도입한다. 이 경우에도 양분되어 배열된 값들의 척도상에서 초점값을 '최대'나 '최소'로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스스로의 관여(self-involvement)/관여의 직접성(directness of involvement)'을 이 강화사들의 의미기능의 부가적인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강화사들은 주요 초점사들과 달리 존재 전제를 유발하지 않고, 제외 함의도 보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의 제외 해독과 첨가 해독은 이 강화사 고유의 기능들이라기 보다는 문맥 조건들과의 상호작용하에 얻어지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하위분류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의 다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문제에 있어서 모호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들은 또한 '동일성의 강조 단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의 기본의미는 다른 강화사들과 공유하는 공통의 의미의 핵에 해당한다.

영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의 세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에서 머리에 묶이지 않은 강화사를 다루는 이 작업은 근본적으로 이 강화사 현상의 보편언어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세 언어에 공히 적용되는 기본의미의 분석도 그 일환이다. 개별 언어적인 특성들이 오히려 이러한 보편 언어성 논의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논거를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서로 다른 언어들 of 여러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후속 연구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보다 정밀하고 우아한 형식적 논의와 기술에 의해서도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범모. 1998. "문법과 언어 사용 - 코퍼스에 기반한 재귀사 '자기, 자신, 자기자신'의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1, 165-204쪽
- 고영근. 1983. 『한국어문법의 연구:그 어제와 오늘』, 서울:탑출판사
- 김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 서울:탑출판사
- 김 승곤. 1989. 우리말 토씨연구. 서울:건국대학출판부
- 김 승곤. 1992. 한국어토씨연구. 서울:서광학술자료사
- 김 영희. 1974. "한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문법연구 1집 서울:탑출판사
- 남기심/고영근. 1985. 표준한국어문법론. 서울:탑출판사
- 서정수. 1996. 『한국어문법』, 서울:한양대학교 출판원
- 성광수. 1979. 『한국어조사의 연구』, 대구:형설출판사
- 성광수. 1981. "한국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재고 - 자기와 자신을 중심으로," 한글 172.
- 양인석 .1993. Linguistic Exploration, Seoul: Hanshin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개발원 (편)(1998), 『연세대학교 한한국어사전』 서울:두산  
동아.
- 윤재원. 1988. 『한국어보조조사의 담화분석적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이익환-Kuno Susumu. 1995. 'Empathy and Hearer-based Honorifics in Korean, 언어  
20:4. 213-270
- 이익환.이민행. 1998. 「지시적 표현과 정보구조의 해석을 위한 이지적 모형」, 『언어  
』, 23.1. 65-85
- 이정민. 1999. 「Contrastive Topic: A Locus of the Interface Evidence from Korean  
and English」, K. Turner, ed. Current Research in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Vol. 1. 317-42



- 이정민. 1999. 'Topic, contrastive Topic and Focus: What's on Our Minds.' Plenary Paper presented at the 2nd Int'l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July 27, 1999, Waseda, Tokyo.
- 임서현·이정민. 1999. 「한국어 상 부사의 쌍대성에 관한 연구」, '-이미'와 '아직'을 중심으로 - 『어학연구』 35-3.
- 임홍빈. 1987. 『한국어의 재귀사 연구』, 서울:신구문화사.
- 장경희. 1990. 「조용표현」, 『한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동아출판사.
- 장석진. 1986. 「조용의 담화 기능: 재귀 표현을 중심으로」, 『한글』, 194.
- 장석진. 2000a. '통합문법의 기술: 주제-초점과 시점,' 서강대학교언어정보연구소 발표 (2000.5.20) (Unified Grammar: Topic-Focus and PPoint of View,' Sogang University Language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5/20/2000
- 장석진.2000b. 'Information Unpackaging: A Constraint-based Grammar Approach to Topic-Focus Articulation,' Paper presented at the 10th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UCLA, 10/13/2000.
- 채완(1977),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국어연구』 39
- 최규련(1998 ㄱ), 「'다만'과 '역시' 그리고 '-만'과 '-도'의 의미」, 1998년 2월 12일 한국언어학회 겨울연구회 발표논문. manuscript.
- 최규련(1998 ㄴ), 「국어초점사 '다만'과 '-만'의 의미」, 『한글』240-241 통합집. 한글학회. 299-322.
- 최규련(1999 ㄱ), 「국어 초점사로서의 '곧, 꼭, 바로, 하필(이면)'의 의미·기능」, 『연세어문학』30-31 통합집. 7-35.
- 최규련(1999 ㄴ), 「국어 초점사 '겨우'의 의미분석 - 상(相) 기능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집
- 최규련(1999 ㄷ), 「초점과 영향권 - 국어 초점사 '다만, 역시, 심지어' 그리고 '-만, -도, -까지/마저/조차'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6집
- 최규련(1999 ㄹ), 「독일어와 한국어의 초점사 통사론 1」, 1999년 6월 25일 한국독어학회 제 1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규련(1999 ㄹ), 「절대적 보완집합과 관련된 영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 표현들 1:」, ( English, German and Korean Expressions with Respect to Absolute Complementation 1: ) 1999년 8월 11일 한국언어학회 여름 학술대회 발표 논문
- 최규련(2000 ㄱ) 「국어 초점사 '이미': 초점사 기능과 상기능 사이」, 2000년 5월 20일 한국언어정보학회 월례회 발표논문
- 최규련(2000 ㄴ), 「독일어 초점사 'noch'와 한국어의 초점사 '아직'의 비교 대조」, 2000년 6월 23일 한국독어학회 제 2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규련(2000ㄷ), 「국어 제외 표지사 '밖에...'와 제외 초점사 '밖에... + 부정(否定)'의 의미와 기능」, 『국어학』 35, 143-170
- 최규련(2000ㄹ), 「The Semantic Analysis of Korean Focus Particle 'acik」, 2000년 7월 15일 ICKL 체코 프라하 국제 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규련(2001ㄱ), 「국어 강화사 '스스로, 자신'의 의미와 기능 - 초점사로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2001년 2월 8일 한국언어학회 겨울 학술대회 (연세대) 발표논문
- 최규련(2001ㄴ), 「첨가 초점사 '역시, 도'의 의미」, 2001년 2월 16일 한국어의미학회 겨울 학술대회 (서울사대) 발표논문
- 최규련(2001ㄷ), 「독일어 강화사 'selbst'와 한국어 강화사 '스스로, 자신'의 비교 대조」, 2001년 4월 28일 한국독어독문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신대) 발표논문
- 최규련(2001ㄹ), 「전제 (presuppositions), 함의 (entailments) 그리고 함축 (implicatures) - 초점사 분석과 관련하여」, 2001년 5월 19일 한국언어정보학회 (대우재단빌딩) 발표논문
- 최동주(1997), 「현대국어의 특수조사에 대한 통사적 고찰」, 『국어학』 30, 201-224
- 최재웅(1996), 「-만'의 작용역 중의성」, 『언어』, 21-1/2. 673-692
- 최재웅(1998), 「국어 특수조사 '-만': 형식의미론적 분석」, 『한국어 의미학』, 3집 한국어 의미학회, 41-65
- 최재웅·이민행(1999), 「초점」, 이익환 외(1999), 『형식 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서울:한신문화사, 157-205 쪽.
-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서울:어문각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샘문화사
- 홍사만(1985), 『국어 특수 조사론』, 대구: 학문사
- Altmann, H. 1976. Die Gradpartikeln im Deutschen. Tübingen: Niemeyer
- Atlas, J.D. and Levinson, S.C. 1981. 'It-clefts, informativeness, and logical form: radical pragmatics', in P. Cole (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Edmonson, J.A. and Plank, F. 1978. 'Great expectations: An intensive self analys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 373-413.
- Helbig, G./Buscha, J. 1993. Deutsche Grammatik. Ein Handbuch für den Ausländerunterricht. Leipzig·Berlin·München·Wien·Zürich·New York: Langenscheidt Verlag Enzyklopadie
- Jacobs, J. 1983. Fokus und Skalen. Zur Syntax und Semantik der Gradpartikeln im Deutschen. Tübingen: Niemeyer

- König, E. 1991. *The Meaning of Focus Particles. A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Routledge
- König, E. and Siemund, P. 1996. 'Selbst-Reflektionen', in G. Harras (ed.), *Wenn die Semantik arbeitet Festschrift für Klaus Baumgartner*. Tübingen: Niemeyer, 277-302.
- Plank, F. 1979. 'Zur Affinität von selbst und auch', in H. Weydt (ed.), *Die Partikeln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de Gruyter, 269-84.
- Primus, B. 1992. 'Selbst - Variants of a scalar adverb in German', in J. Jacobs (ed.), *Informations Struktur und Grammatik*.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54-88.
- Rooth, M. E. 1985. *Association with Focu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Rooth, M. E. 1996. *Focus*. In: S. Lappin(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Oxford: Blackwell
- Siemund, P. 2000. *Intensifiers*. London and New York:Routledge
- Taglicht, J. 1984. *Message and Emphasis. On Focus and Scope in English*. London.
- Wall, R. 1972.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Linguistics*. Englewood Cliffs.